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105>

JCCT 2023-9-13

존 그린리프 위티어의 시에 반영된 반 노예제 운동의 성취

John Greenleaf Whittier's Poems Reflecting the Achievement of Anti-slavery Movement

이 협*

Hyub Lee*

요약 본 연구는 존 그린리프 위티어의 반노예제 시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독실한 퀘이커 교도인 위티어는 19세기에 만연한 노예제를 비판했다. 그의 활동은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노예폐지운동에 언론인 등으로 참여했던 위티어는 1830년대부터 186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반노예제시를 썼다. 「버지니아 노예 어머니의 이별」은 남부로 팔려간 딸에게 느끼는 노예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을 묘사하며 독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매사추세츠에서 버지니아로」에서 화자는 버지니아의 도덕적 타락에 비통해 하면서 노예를 노예주로 되돌려보내는 것을 거부한다. 「마침내 오르다」는 떠오르는 달을 정치적, 사회적 상징으로 사용하면서, 도주 노예법의 통과를 찬양한다. 남북 전쟁 이후에 작시된 「평화의 가을」은 노예 해방이 선포된 후 평화로운 상황을 묘사한다. 위티어의 노력은 노예해방 운동과 문학에 기여한 바가 크다.

주요어 : 위티어, 반노예제, 노예해방, 종교적 신념, 반격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John Greenleaf Whittier's anti-slavery poems. As a Quaker, he criticizes and satirizes the rife slavery in the mid nineteenth century. His thoughts are based on his religious belief. "The Farewell of a Virginia Slave Mother" depicts the mother who lost daughter for she was sold to the South. The harsh state of the corrupt South is described. In "Massachusettes to Virginia," the speaker, deploring the moral corruption of Virginia, denounces any attempt to return slaves to slave states. With a moonrise as a socio-political symbol, "Arisen at Last" celebrates the passage of law to protect fugitive slaves. Written after the Civil War, "The Peace Autumn" celebrates the peaceful situation in which Emancipation was declared. His efforts contributed to the abolitionist literature.

Key words : Whittier, Anti-slavery, Emancipation, Religious belief, Backlash

1. 서론

존 그린리프 위티어(John Greenleaf Whittier) (1807-92)는 미국의 노예폐지 운동에 참여했을 뿐

만 아니라 노예폐지론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다. 그의 노예폐지 운동 참여 및 반 노예제 시 창작 활동은 1833년부터 1865년에 이르는 30여 년의 기간에 집중되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정회원,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단독 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25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1일

Received: July 25, 2023 / Revised: August 20,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Corresponding Author: hyublee@chosun.ac.kr
Division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Chosun Univ., Korea

노예해방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백인 노예해방 운동가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William Lloyd Garrison)과의 만남이었다. 사실 위티어는 게리슨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전부터 노예제를 혐오했었다. *New England Review*에 기고했었던 글에서 그는 이미 노예제를 비판했었다. 게리슨의 팸플릿 「아프리카의 식민지화에 대한 생각」(“Thoughts on African Colonization”)을 읽고는 노예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급진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Mordell 66-7).[1]

그의 본격적인 활동은 1833년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즉각적인 해방을 호소한 「정의와 방편」(“Justice and Expediency”)이라는 노예폐지론 팸플릿을 간행한 것에서 시작한다. 또한 미국 반노예제 협회(American Anti-Slavery Society)의 창립 멤버로서 1833년의 반노예제 선언(Anti-slavery Declaration)에 서명하기도 했다. 노예제 반대를 주도하는 언론매체였던 *Pennsylvania Freeman*의 편집자로 1838년부터 1840년까지 활동했다. 1839년에는 Liberty Party의 창립 회원이 되었고 1840년에는 World Anti-slavery Convention에 참여했다. 1847년에는 북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신문이었던 *The National Era*의 편집자가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뉴욕에 위치한 *American and Foreign Antislavery Reporter*와 *Middlesex Standard* 등 여러 간행물들의 에디터 역할을 1840년대에 맡은 바 있다. 기고문 작성 역시 활발히 하여 *Knickerbocker Magazine*, *Democratic Review* 등에 기고하였다. 그가 편집자로 활동했거나 기고문을 투고했던 언론 매체들은 그 제명만으로도 정치적 성향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이러한 활동은 1865년에 13차 개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후에는 위티어는 다른 유형의 시를 창작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이러한 언론에서의 활약과 그의 창작 활동은 맞물려 있었다. 그는 주로 이 시기에 노예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시를 썼다. 그는 생애 중 반노예제 시집으로 *Poems Written during the Progress of the Abolition Question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1830 and 1838* (1837)과 *Voices of Freedom* (1846)을 출간했다. 물론 이외에도 반 노예제 시로 분류될 수 있는 시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의 방대한 시 세계에서, 약 100편 정도가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위티어 시를 총망라한 *The*

*Poetical Works of Whittier*에는 ‘반 노예제 시’ (ANTI-SLAVERY POEMS)라는 섹션이 있는데, 이 섹션에 수록된 반노예제 시는 100편 정도 있다. 시기적으로는 대다수가 1833년부터 1860년대 중반 사이에 출간된 것이다. 이 방대한 분량의 반 노예제 시들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위티어의 관점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몇 편의 시에서 주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작성된 시대 순서로 분석할 것이다. 사실 기존의 국내 유일한 위티어 연구에서는 초기인 1830년대의 시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었다. 본 논문에서는 1830년대의 시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시 한편만 다루고, 이후 1860년대 까지 분석 대상을 넓힐 것이다.

1830년대의 시로는 당시의 유명한 작품으로 이번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버지니아 노예 어머니의 이별」(“The Farewell of a Virginia Slave Mother”)(1838)을 분석할 것이다. 나머지 시들 역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분석되는 작품들이다. 1840년대의 시로는 「매사추세츠에서 버지니아로」(“Massachusetts to Virginia”)(1843)를 분석할 것이다. 1850년대는 노예 해방운동의 하나의 성과로서 도주노예법에 연관된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 통과되었을 때에 쓴 「마침내 오르다」(“Arise at Last”)(1855)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전 무렵에 쓴 시로 「평화의 가을」(“The Peace Autumn”)(1865)을 분석할 것이다. 반노예제 활동 초기의 위티어의 시와 후기에 쓴 시를 비교 대조해볼 것이다. 반노예제 운동이 결실을 맺어가면서 시의 내용도 참담한 내용에서 희망에 찬 밝은 내용으로 변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초기 노예제 비판시

반노예제 운동에 위티어가 참여한 초기인 1830년대에 그가 쓴 시들은 모두 노예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한 묘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노예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시로 「버지니아 노예 어머니의 이별」을 들 수 있다. 「버지니아 노예 어머니의 이별」은 딸들이 노예로 남부로 팔려나간 어머니가 애통해하는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비치(Christopher Beach)는 이 시를 개인의 목소리를 취하는 시 중 하나로 분류한다.[2] 그리고 안젤라 레너드(Angela Leonard)는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에 따르는 고통에 대

한 위티어의 가장 분명한 표현 중 하나”[3]로 높이 평가한다. 1연과 2연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남부의 노예로 팔려버린 딸들에게

가버렸다, 가버렸어 - 팔려가 버렸어
축축하고 외로운 눈으로,
그곳에서는 노예에게 채찍질이 끊이지 않고
시끄러운 벌레들이 쏘아대고
열병의 악마들이 훔날리지

...

괴롭게 햇빛이 작렬하지
뜨겁고 안개어린 대기를 통해서,
가버렸다, 가버렸어 - 팔려가 버렸어
축축하고 외로운 눈으로
버지니아의 언덕과 물가로부터
나는 슬프다. 도둑질당한 내 딸들이!

가버렸다, 가버렸어 - 팔려가 버렸어
축축하고 외로운 눈으로
거기에는 어머니의 시선이 그들 곁에 있지 않고
어머니가 그들을 들을 수 없지,
고문하는 채찍질이
수많은 깊은 상처로 등을 이을 때에
결코 어머니가 상냥하게 빌어주거나
어머니의 팔로 그들을 보살피지 못할지니.

To Her Daughters Sold into Southern Bondage

GONE, gone, -sold and gone,
To the rice-swamp dank and lone.
Where the slave-whip ceaseless swings,
Where the noisome insect stings,
Where the fever demon strews
...
Where the sickly sunbeams glare
Through the hot and misty air;
Gone, gone -sold and gone,
To the rice-swamp dank and lone,
From Virginia's hills and waters;
Woe is me, my stolen daughters!

Gone, gone, -sold and gone,
To the rice-swamp dank and lone.
There no mother's eye is near them,
There no mother's ear can hear them;
Never, when the torturing lash
Seams their back with many a gash,
Shall a mother's kindness bless them,
Or a mother's arms caress them.

당시 남과 북의 대립구도가 배경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 시는 노예제의 폐습이 강하게 남아있던 남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노예제의 죄악이 남부의 부패, 추악함 또는 계급의 화려함과 연관되어 있다.”[4] 노예제의 죄악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반영되어 있다. “가버렸다, 가버렸어- 팔려가 버렸어/ 축축하고 외로운 눈으로”는 연마다 반복되는 구절인데, 딸들이 가버렸다고 억제할 수 없이 반복하는 어구는 충격과 비탄에 빠진 화자의 심리상태를 드러내 준다.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발화하는 것은 공황 상태에 빠진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이러한 참담한 심경을 묘사하는 것은 독자로부터 노예제의 참상에 대한 이해와 노예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비참한 시기 중에도 한편으로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흐름이 거세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가 위티어의 시에도 반영되어 있다. 「매사추세츠에서 버지니아로」는 이제까지 다른 시들에서 나타났던 동정과 연민 내지 다소 약했던 화자의 주장과는 차별화된다.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화자는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는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대니얼 버트(Daniel S. Burt)는 이 시를 반노예제에 관한 “주제의 그의 가장 열정적인 시”[5]로 간주하며, 아서 홉슨 퀴(Arthur Hobson Quinn)은 “「매사추세츠에서 버지니아로」에서 위티어가 최고의 위치로 올라섰다”[6]고 높이 평가한다. 「매사추세츠에서 버지니아로」는 처음에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채로 *The Liberator* 1월 27일자에 등장했다. 저자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시가 표방하는 내용이 민감한 이슈를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1842년에 보스턴에서 도망 노예인 조지 라티머(George Latimer)가 체포된 것이 시의 발단이 되었다. 도망 노예들을 돌려 보내는 것에 협조하는 것을 철회시키려는 노력을 당시의

언론이 비판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시인은 이 시를 썼다. Ipswich의 Business Committee of a Latimer Convention에서 낭독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 취지에 맞게 24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의 주요한 내용은 도주노예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버지니아 주가 매사추세츠 주에 공격한 것에 반발하는 내용이다. 2연이 “우리는 너희의 위협을 듣고 있다, 버지니아여!”(We hear thy threats, Virginia!)로 시작하고 있듯이 화자는 버지니아의 요구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버지니아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화자는 버지니아의 내적 타락에 대해서도 반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시는 “17세기에 인권과 자유의 원칙하에 세워진 이후 버지니아의 도덕적인 힘의 쇠락”[7]을 비판한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정신이 남부의 위협에 저항한다고 경고한다. 당시에는 버지니아를 남부로 분류한 것이다. 초기의 정신이 사라진 버지니아에 비해서 매사추세츠는 초기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화자는 생각한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매사추세츠가 그토록 비열하게 굽힐 수는 없습니다. 초기 시대의 정신이 지금도 매사추세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Thank God! not yet so vilely can Massachusetts bow;
The spirit of her early time is with her even now;

화자는 청교도 정신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마지막 3개의 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입장을 버지니아인들에게 분명히 밝힌다.

잘 보시오, 버지니아인들이여! 침묵 속에서 우리는 견뎌왔소,
우리의 신념과 믿음, 당신들의 모욕과 비웃음에 대한 대응으로서.
당신들은 우리들의 가장 친절한 충고를 일축해버렸소.
당신들은 우리의 생명을 사냥해왔소.
그리고 당신의 수갑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여놓았소!

우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고, 무기를 들어올리지 않으며, 핵불을 던지지 않는다
당신들의 죄의 땅 밑의 흔들리는 광산의 폭발성 가스 속

으로.

우리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한 농노들에게 남겨둔다
인간의 강력한 상황성 및 신과 같은 영혼으로 분투하도록!

그러나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했던 맹세는

자유와 인간을 위해 천상에 기재되어 있으니.

우리 구역 안에서 노예사냥은 없으며, 우리 쪽에는 해적도 없다!

매사추세츠 주에는 족쇄가 없어서, 우리의 땅에는 노예가 없다!

Look to it well, Virginians! In calmness we have borne,

In answer to our faith and trust, your insult and your scorn;

You've spurned our kindest counsels; you've hunted for our lives;

And shaken round our hearths and homes your manacles and gyves!

We wage no war, we lift no arm, we fling no torch within

The fire-damps of the quaking mine beneath your soil of sin;

We leave ye with your bondmen, to wrestle, while ye can,

With the strong upward tendencies and God-like soul of man!

But for us and for our children, the vow which we have given

For freedom and humanity is registered in heaven;

No slave-hunt in our borders,—no pirate on our strand!

No fetters in the Bay State,—no slave upon our land!

화자는 버지니아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평화적이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 2개의 행에서는 매사추세츠에서는 노예가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을 하며 의지

를 확고히 나타내고 있다. 화자가 의지를 전달하는 스타일은 연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리처드 그레이(Richard Gray)가 지적하듯이 “위티어는 웅변술을 선택하는데, 도망 노예를 노예주로 되돌려 보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기 때문이다.”[8]

III. 반노예제운동의 성취

1850년대는 반 노예제 운동의 성취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이, 도주한 노예와 관련해서도 위의 상황보다 더욱 진전된 상황에 대하여 다루는 시가 있다. 「마침내 오르다」는 도주노예법에 반대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관하여 쓴 시이다. 제목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 시에서는 상승의 이미지가 핵심적이다. 1연과 2연에서는 자신이 상징적으로 무덤에 섰을 때에 마지막으로 달이 피어올랐고, 자신은 수치와 비통함에 참회를 하였다고 회상한다. 달은 반노예제 활동이 억압받는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그러나 3연에서 다시 등장하는 달의 상승에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다시금 피어오른 달이 빛난다
잎과 꽃과 접혀진 날개에,
그리고 당신은 봄과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Again that moon of blossoms shines
On leaf and flower and folded wing,
And thou hast risen with the spring!

빛나는 달은 억압받는 상황의 역진을 상징한다. 도주한 노예와 관련된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평화를 기원한다.

북부와 남부가 더 이상 분쟁을 벌이지 않고
모든 싸움과 공포가 사라졌을 때에
자유의 신성한 오순절에서.

When North and South shall strive no more,
And all their feuds and fears be lost
In Freedom's holy Pentecost.

마지막 행에서 오순절을 언급함으로써 반노예제의 성취

를 종교적 의미로 환원시키고 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 교도와 유대인이 공통으로 가지는 축일이다. 노예제에 관한 시각 차이로 인해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는 남북 북을 두 종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오순절 시기는 보리 수확기와 겹친다. 신약의 시대에 이르면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신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준 날로 기념하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교도들은 오순절을 신도들에게 성령이 내린 날로 여긴다.

이 시와 유사한 맥락에서 작성된 시가 있다. 남북 전쟁 이후 평화로운 상황에 대해 찬양하는 「평화의 가을」이다. 이 시는 1865년도 에섹스 카운티의 농업 축제를 위하여 쓴 작품이다. 언뜻 보면 반 노예제 시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겠으나, 반 노예제시 섹션에 수록되어 있다. 첫 연에 시인의 감정상태가 잘 나타나 있다.

아무도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휴식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두려움을 줄 수 없으며
풍요로움의 손님으로 평화가 안착했으므로
농지의 그늘 밑에서!

THANK God for rest, where none molest,
And none can make afraid;
For Peace that sits as Plenty's guest
Beneath the homestead shade!

위의 구절은 일견 표피적으로는 평화로운 목가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배경이 기저하고 있다. 화자가 비폭력성에 감사하는 이유는 남북 전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이다. 시를 쓰기 2년 전인 1863년에 노예해방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공식적 차원에서는 노예제의 위협이 사라졌고 1865년에는 13차 개정이 있었다. 이 시는 위티어가 약 30년 동안 헌신해 온 노예해방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에 대한 감사에서 자신의 반노예제 운동을 종교적 의미로 환원시키고 있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위티어의 반노예제 활동은 시작부터 그의 종교적 신념과 결부되어 있었다. 노예제는 그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노예제와 교회」(“Slavery and the Church”)라는 글에서 위티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

다.

노예 소유가 신성한 제도이고 신의 거룩한 속성과 일치한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 오딘의 숭배자나 브라마와 비슈누의 신자들만큼이나 기독교인의 품성을 주장할 수 없다.

Men who maintain the doctrine that slaveholding is a divine institution, and consistent with the holy attributes of Deity have no more claim to the character of Christian than the worshippers of the Scandinavian Odin, or the devotees of Brahma and Vishnu.[9]

노예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그는 이교도에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다. 그의 정치적 견해는 또한 종교적 신념이었던 것이다.

IV. 결론

방대한 분량의 위티어의 반노예제 시 중에서 주요 작품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비록 위에서 다룬 작품들이 극히 일부이지만, 위티어의 전반적인 성향과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노예제 운동이 진척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었고, 그의 시도 이를 반영했다. 그의 시는 당시대의 역사적 사건들 및 담론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위티어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노예제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담론의 역학 작용을 볼 수 있는 창 역할을 할 수 있다.

위티어가 미국에서 반노예제 문학을 주도한 대표적인 시인이므로, 위티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반노예제 문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킬 수 있다. 위티어 연구가 노예 해방 운동에 관한 연구에 일조하는 것이 기대된다.

Rereading John Greenleaf Whittier, Ebenezer Elliott, and Hip-Hop-Ology, Lexington Books, p. 223, 2010.

- [4] I.F. Finseth, *Shades of Green: Visions of Nature in the Literature of American Slavery, 1770-1860*, University of Georgia P, p. 153, 2009.
- [5] Burt, Daniel S., *The Chronology of American Literature: America's Literary Achievements from Colonial Era to Modern Times*, Houghton Mifflin Company, 2004, p. 182.
- [6] A.H. Quinn, *The Literature of the American People: An Historical and Critical Survey*, Appleton-Century-Croft. p. 444, 1951.
- [7] M. Lowance, *Against Slavery: An Abolitionist Reader*, Penguin, p. 144, 2000.
- [8] R. Gray, *A History of American Poetry*, Wiley Black, p. 66, 2015.
- [9] A. Mordell, *Quaker Militant: John Greenleaf Whittier*, Kennikat P, p 135, 1933.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References

- [1] A. Mordell, *Quaker Militant: John Greenleaf Whittier*, Kennikat P, pp 66-7. 1933.
- [2] C. Beach, "John Greenleaf Whittier." *Encyclopedia of American Poetry: The Nineteenth Century*, p. 482, 1998.
- [3] A.M. Leonard, *Political Poetry as Discourse:*